

성령사역과 제자훈련이 만난 교회





김오용 목사는

총신대신학대학원과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충현교회 부목사로서 북한선교원에서 사역했고, 리비아 선교사로 섬겼다.
현재 통일로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보통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 제자훈련을 받는 교인이라고 하면 주로 교육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고, 이지적인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교회와 교인들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하는 목회자는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는 즉, '지행일치(知行一致)'를 강조하다 보니 감성적인 변화와 체험보다는 지성과 행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상한다. 안수기도, 신유, 신비 체험 등은 제자훈련과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신앙 스타일로 서로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다. 그래서인지 제자훈련 하면 대부분 장로교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목회 방법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이런 선입견을 여지없이 깨뜨려주는 목회자가 있다. 방언, 안수기도, 신유 체험 등으로 첫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 열정을 인정받아 순복음교단 신학교에서 강의까지 맡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보수적인 장로교단의 목회자다.

교회를 개척하고, 15년이 지난 후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되기 시작했을 때 제자훈련을 시작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그다. 60대이면서도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하며 뜨거운 분위기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16기의 제자훈련생을 배출하고, 훈련된 성도들을 세워 목회의 동역자로 삼고 있는 통일로교회 김오용 목사를 만났다.

신비 체험으로 시작된 신앙

김오용 목사는 1950년대 경북 김천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린 시절은 교회와 거리가 멀었다. 김 목사는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늘 술을 마시고 남의 집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말한다.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제대로 된 중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그는 희망 없는 농촌생활과 가난을 탈출하기 위

해 서울로 왔다가, 도리어 도시의 밑바닥 생활 가운데 병을 얻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계상황에서 김 목사를 만나주셨다. 그때 나이가 18세였다. 몸이 아파 서울에서 견디지 못하고 시골로 돌아왔을 때, 한 이웃의 전도를 받았다. 교회는 어릴 때 성탄절에 과자 얻어먹으려 한두 번 간 경험밖에 없었던 김 목사는 그때 그저 딱 한 번만 교회 가기로 약속했다가, 그 첫 예배에서 이해할 수 없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김 목사는 그때부터 신비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새벽에 “오용아, 오용아 일어나라”는 또렷한 목소리가 들리고, 그 목소리에 일어나보니 이웃 집사님들이 새벽기도에 가는 시간 이어서 같이 새벽기도에 갔다. 저녁이 되면 벌써 내일 열리는 새벽 예배에 가고 싶어 전될 수 없었다고 한다.

몸이 아팠던 김 목사는 이후 6개월 정도 당시 유명한 변계단 권사의 신유집회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기도 하고, 개척 초기였던 여의도순복음교회 집회에 참여해 조용기 목사의 안수기도를 받기도 했다. 그는 변계단 권사의 안수를 받을 때 마치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과 같은 ‘성령 체험’을 경험했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체험이었다. 김 목사는 어린 시절 그 모든 체험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라고 확신하고 있다.

자격 없이 시작된 사역의 길

그 뒤 김 목사는 믿은 지 8개월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일학교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당시 주일학교에 서는 교사가 설교했었는데, 아이들이 전혀 집중하지 않고 떠들어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번 해 보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그렇게 서게 된 설교단에서 사무엘서 본문을 설교했다. 아직 성경 지식이 없었던 터라 “흠니와 비닐하우스는…”이



특별한 은사를 체험한 김 목사는 이후 교회 없는 시골 마을을 찾아가서 전도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기까지 했다. 이 모든 일이 그가 세례를 받기도 전, 18세 때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해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깔깔대며 웃기도 했다. 또 주일학교에서 안수기도를 해도 되는 줄 알고 설교 후에 아이들에게 안수기도를 했더니, 아이들이 방언하고 회개하며 그 자리가 울음바다가 되는 일도 일어났다.

이런 특별한 은사를 체험한 김 목사는 이후 교회 없는 시골 마을을 찾아가서 전도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기까지 했다. 이 모든 일이 그가 세례를 받기도 전, 18세 때 있었던 일이다. 이후 그 지역 노회장 목사가 찾아와 김 목사를 만나 대화를 나눈 후, 김 목사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시켰다. 18살의 김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은 노회장은 젊은 김 목사를 다시 보고, 그가 가진 은사를 인정하며 신학교에 가라고 권면했다.

하지만 김 목사는 당시 정규 중학교에 못 간 아이들을 모아 오후에 가르쳤던 ‘재건중학교’ 즉 야학에 해당하는 곳에서 공부했을 뿐이기에 신학교에 가기 전에 고등학교부터 다녀야 했다. 그가 들어갈 수 있었던 고등학교는 청송에 있었던 구남 고등학교였는데, 모든 학생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김 목사는 이미 김천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다.

김 목사는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평일에는 까까머리에 교복을 입고 청송에서 학교에 다녔고, 주일에는 김천의 교회에서 양복을 입고 가발 쓰고 설교를 했다고 한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까까머리 고등학생이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도 하며 설교한 셈이다.

김 목사는 이 시기를 가장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기로 기억한다. 그러나 사역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고등학교 교육조차 받지 못했던 사람이 설교를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

열정으로 진행된 교회 개척의 길

김오용 목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주

위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구신학교를 거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김 목사는 충현교회에서 부교역자 시절을 보낸다. 당시 충현교회의 부교역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그는 같은 반에서 공부하던 충현교회 권사에게 “혹시 자리가 나면 저도 충현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고 말한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충현교회 부교역자가 될 수 있었다.

또 당시에는 신학대학원에서 개강수련회를 할 때 학생 중에서 수련회 강사를 하기도 했는데, 김 목사는 그 강사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이는 그만큼 그가 받은 은사를 주위 학우들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김 목사는 6년을 충현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하다가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1년간 42개 교회를 순회하는 단기선교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개척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됐다. 1년의 단기 사역이었지만 리비아에서의 사역은 절대 쉽지 않았다. 지나가는 양 떼 사진을 찍었다가 그 사진에 교도소 담벼락이 찍혀 간첩으로 의심받아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충수염을 앓으면서도 왜 아픈지도 모르고 통증을 참으며, 교회를 순회하며 설교하고,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사역을 계속했다. 결국, 충수가 터져 리비아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한국으로 들어와 9시간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40여 일의 회복 기간이 지난 후에야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병원 문을 나서면서 바로 상계동에 들어가 교회를 개척했다. 리비아 사막을 오가며 이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했던 결심을 9시간의 수술과 40일의 회복 기간을 거치면서도 잊지 않았고, 지팡이를 짚고 병원 문을 나서는 즉시 실천했다.

김 목사 부부와 딸 셋이 24평 아파트, 자신의 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동일로교회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웃을



한 명씩 전도하기 시작했고, 집에서 20명 정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렇게 조금씩 커진 교회는 빌딩의 한 층을 임대해 예배당을 꾸릴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 약 15년 정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고, 약 400여 명이 모이고, 빌딩 4, 5, 6층을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된 발전이 이뤄졌다. 매마침 일어난 IMF 외환위기 사태는 오히려 동일로교회가 건축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현재 있는 위치에 예배당을 건축하기에 이르렀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자훈련 도입

그런데 이때까지 동일로교회는 제자훈련을 하지 않고 있었다. 김 목사는 그 이전까지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1994년에는 『예수 제자 훈련』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지만, 이는 귀납적 성경공부와 소그룹, 그리고 삶의 실천을 바탕으로 한 제자훈련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김오용 목사는 젊을 때 신유 은사를 통해 병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세례를 받기도 전에 교회를 개척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사를 인정받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젊을 때부터 경험했던 안수기도, 신유 체험 등과 제자훈련은 별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세례를 받기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늦깎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교회에서 사역했던 경험은 사역을 맡기기 이전에 먼저 훈련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제자훈련의 원칙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그리고 그가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곳은 전통적인 심방 목회의 대명사인 충현교회였다.

게다가 동일로교회는 개척 이후 15년 동안 비교적 순탄한 부흥의 길을 걸었다. 개척 이후 사역에 한계를 느끼고 제자훈련의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당시 김 목사의 상황에선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이하 CAL세미나)에 가서 제자훈련

을 배워보라고 권유하는 사람에게 코웃음을 쳤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그는 건축을 계기로 개척 후 15년이 지난 동일로교회에 제자훈련을 도입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16기에 걸쳐 180명의 제자훈련 수료생들을 배출하고, 제자훈련 방식으로 동일로교회를 재편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김오용 목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다. 김 목사는 충현교회 부교역자 시절 고(故) 옥한흠 목사가 순장들을 데리고 충현교회 기도원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는 그때를 옥 목사와의 첫 만남으로 기억한다. 이미 김 목사는 충현교회 부교역자로서 고(故) 김창인 목사를 존경하고 따르면서도, 또한 옥한흠 목사에 대한 관심과 존경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의 영적 스승으로 김창인 목사와 옥한흠 목사를 동시에 언급한다.

특히 김 목사가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사역하던 당시, 42개 교회가 있었지만 사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교민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한국 교회 목사들의 설교 테이프를 자주 들었다. 그 때 교민들이 가장 원했던 테이프가 바로 옥한흠 목사의 설교 테이프였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나 귀국 후 즉시 수술을 받고 바로 교회 개척 과정에 집중하느라 새롭게 제자훈련을 배울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 책을 살피며 자신만의 제자훈련을 진행해 나갔는데, 『예수 제자 훈련』이라는 김 목사의 저서도 그 결과물이다. “나름대로 나도 잘한다고 해왔지만, 전문가가 있었어요. CAL세미나를 들은 친구가 꼭 한 번 들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는 건축을 위한 땅을 구입했을 때, 교회 건축과 함께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CAL세미나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사실 늘 한번 CAL세미나를 들어려고 했었는데, 좀 있으면 나이 제한에 걸려서 세미나를 못 들을 것 같아 얼른 신청했습니다.”



김 목사는 CAL세미나에서 옥한흠 목사의 ‘광인론’ 강의를 듣고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 “그때 내가 이 강의를 10년만 먼저 들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목회를 새롭게 해 보리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사실 아내와 세 딸을 데리고 개척해서 교세가 커지고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부지를 구입한 상태라면, 이미 이론 성공에 붙잡혀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김 목사의 경험을 따라가 본다면, 누군가에게 배우려 하기 보다는 다른 이를 가르치려 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 목사는 배우려는 태도를 잃지 않았고, 지금까지 자신이 해 온 것들이 잘못됐다고 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운 것을 새롭게 실천했다. 그래서 사모와 부목사들도 CAL세미나에 적극 보냈다.

또한, 김 목사는 제자훈련 가운데 자신이 배우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성도들을 제자훈련 시키다 보니까 내가 변하더라고요.” 김 목사는 제자훈련 교재와 독서 과제, 그리고 훈련생들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배울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이전에도 소그룹으로 모아놓고 가르친 적은 있었는데, 거기서도 주입식으로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훈련생들이 말할 수 있게 하고, 저는 마치 사회자처럼 들어주며 그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지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이 느껴져요.”

김오용 목사가 자기 성공에 붙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역자라는 사실은 훈련생들의 입을 통해서 증명된다. 제자훈련을 통해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됐다고 고백하는 김미경 집사는 김 목사에 대해서 “옛것을 고수하시거나 안주하지 않는 분”이라고 평가한다. 리비아에서부터 김 목사를 알고 있었던 남편을 따라 개척 당시부터 동일로교회를 섬긴 김성애 권사는 김 목사를 “진리 이외에는 어떤 다양한 것도

열정과 교인들 간의 끈끈한 관계로 이어져 있던 동일로교회는 제자훈련 역시 쉽게 전파될 수 있는 토양을 갖고 있었다. 이제는 안수집사나 권사는 취임 전 반드시 제자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함을 교인들이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받아들이는 융통성 있는 시각을 가지신 분”으로 평가한다.

그 이전까지 동일로교회는 대그룹, 즉 예배와 찬양을 중심으로 하던 교회였다. 15년 동안 김 목사는 그 방법으로 교세를 꾸준히 늘리기도 했다. 그가 제자훈련을 안 했더라도 교세가 줄거나 성장이 안 됐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은사나 능력만 믿고 있지 않았다. “제자훈련 하든 안 하든 성도들의 숫자는 늘어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설교 잘하는 목회자들은 설교만 잘하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목사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교회가 잘 될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 삶이 안 변하던 성도들이 제자훈련이나 소그룹을 통해서 가치관이 변하고, 목회의 동역자가 됩니다.” 자신의 경험에 갇히지 않고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김오용 목사로 하여금 제자훈련 목회자로 거듭나게 했던 것이다.

철저한 실천

김오용 목사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고난 실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제자훈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김 목사는 CAL세미나를 마친 후, 즉시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제자훈련을 접목하는 데 교인들의 반발은 전혀 없었다. 교인 중에는 제자훈련 1기생 김성애 권사와 같이 어릴 때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었기에, 제자훈련을 한다는 소식에 뭇 듯이 기뻐했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반이 먼저 개설됐고, 또 잘 따라쫓던 1기생들의 순종과 변화된 모습은 교회가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됐다. 이미 열정과 교인들 간의 끈끈한 관계로 이어져 있던 동일로교회는 제자훈련 역시 쉽게 전파될 수 있는 토양을 갖고 있었다. 김미경 집사는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의 간증을 듣고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자훈련에 지원했다”고 말한다. 이는 이 교회 평신도 대부분이 공유한 제자훈련 지원 동기다. 이제는 안수집사나 권사는 취임 전 반드시 제자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함을 교인들이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김 목사의 제자훈련이 어떤 것이었나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일화는 바로 그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의 일이다. 김 목사의 부친은 2007년 태풍 나리호가 영남 지방을 강타했을 때, 들에 나갔다가 급격하게 불어난 도랑물에 실종되고 말았다. 119소방대원들과 동네 주민들이 김 목사의 부친을 찾아 며칠을 수색했고, 물론 김 목사도 그곳에 내려가 있었다. 그러나 김 목사는 그 와중에 목요일 오전 제자훈련이 마음에 걸렸고, 고민 끝에 모친에게만 급히 서울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제자훈련을 위해 교회로 향했다.

“교회에 도착하니 10명의 훈련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울면서 제자훈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이런 중에도 제자훈련을 해야 합니까?’라고 하는 훈련생에게 저는 배운 대로 ‘훈련 기간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대답했지요. 그날 말이 필요 없는 눈물로 제자훈련을 마쳤고, 20여 일이 지나서야 낙동강에서 아버님의 시신을 발견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 내내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과 모든 교우가 검은 옷을 입고 와서 끝까지 함께 장례를 도와줬던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그 시신조차 찾지 못한 상황에서도 제자훈련을 인도하기 위해 그 자리로 향하는 목회자에게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철저한 훈련을 통해 동일로교회의 제자훈련은 튼튼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김 목사는 무조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 있지는 않다. “한번은 한글을 제대로 읽거나 쓰지 못하는 할머니 성도님이 꼭 훈련을 받고 싶어 하셔서, 청강생으로 듣기만 하고 말로만 하라고 하고 입학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기수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저를 섬겨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섬겨주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변형을 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을 분명히 지키는 철저한 훈련이 운영되고 있기에, 동일로교회의 제자훈련은 그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다.

간판은 장로교, 엔진은 순복음, 연료는 제자훈련

제자훈련 1기생이었던 강은영 권사는 지금도 ‘여기가 정말 장로교 맞아?’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그만큼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예배가 있는 교회다. 아무래도 김오용 목사의 영적 성향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분명 김 목사는 제자훈련을 하고 교회의 근간을 제자훈련으로 삼고 있지만 자신이 갖고 있던 기존의 영적 성향을 버리지 않았다. 평신도 지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김 목사를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한다.

김 목사는 아직도 열정적인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안수기도 사역을 진행한다. 제자훈련 현장에서도 안수기도는 이뤄지고 있다. 안유선 집사의 말을 들어보면 동일로교회의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먼저 열린 마음으로 찬양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목소리 높여 전심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제자훈련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대시며 온 정성으



로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응답의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김 목사의 영성은 순복음교단 지도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듯하다. 김오용 목사는 지금 순복음교단 대학원에서 ‘현대 목회유형론’을 강의하고 있다. 처음에 김 목사는 “나는 장로교 목사인데 왜 내게 이런 강의를 맡기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순복음교단 관계자들이 “목사님은 간판은 장로교지만 엔진은 순복음 엔진을 달고 계시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했다고 하니, 이미 김 목사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는 셈이다.

그런데 김 목사가 정작 그 강의 시간에 사용하는 주 교제는 옥한흠 목사의 ‘평신도를 깨운다’이다. 김 목사에게는 오순절교단의 영성과 제자훈련의 원칙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순복음 교단 신학생들은 뜨겁게 기도하는 영성은 있는데, 훈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순복음 신앙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에 가서 제자훈련을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제자훈련을 하는 데, 교단의 배경이나 영적 스타일의 차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제자훈련은 그저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목회의 본질일 뿐이다. “저는 현재 62세의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들이나 개척을 시작하는 목회자들에게 ‘행복한 목회를 원하면 반드시 제자훈련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 설교 시간에 변화되지 않던 교인들이 제자훈련 시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그룹에서는 수많은 변화된 간증과 나눔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제가 강사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들이 겪은 경험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강사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적인 영성과 제자훈련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을

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여기서 드러난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를 수도 있지만, 김오용 목사가 추구하는 뜨거운 영성과 제자훈련은 그 핵심부가 일치한다. 김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교인들 각 사람의 변화다. 열정적인 예배나 찬양도, 방언이나 신유 체험도, 모두가 각 사람의 변화를 향해서 존재한다. 그는 “지금도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다 보니 그들이 잘 자라서 각기 제 몫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라고 고백한다. 김 목사에게는 함께 모여 드리는 열정적 예배도 모두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제자들을 만드는 사역의 연장선에 있다.

강은영 권사는 김 목사를 “양들에 대한 사랑이 아주 많은 신 목사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성도들과 흥취를 없이 사랑하고 배려하는 김 목사의 모습을 소개한다. “저희 부부가 처음 시어머니 몰래 교회를 다닐 때였어요. 남편이 토요일이면 차에다 양복과 구두를 미리 챙겨 왔다가 교회에 입고 가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깜빡하고 옷을 챙겨 놓지 못했어요. 고민하다 평소에 자상하게 챙겨 주신 목사님 댁에 가니 선뜻 양복을 빌려 주셔서 그 옷을 입고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김 목사는 ‘성령의 인도’와 ‘성도의 은사’를 잊지 않는다. “제자훈련 목회를 하는 목회자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실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제자훈련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은사에 따라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가 젊을 때부터 경험했던 것들과 제자훈련이 독특한 방법으로 융합돼 동일로교회의 영적 기반을 이루고 있었다. 김 목사의 제자훈련관은 “제자훈련이란 지행일치(知行一致)”라는 시각과는 약간 다르다. 하지만 각 사람을 섬기고 각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김 목사는 제자훈련을 하는 데 교단의 배경이나 영적 스타일의 차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제자훈련은 그저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목회의 본질일 뿐이다.

결국,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 있지만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비전에 동의할 수 있다면, 제자훈련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 “간판은 장로교지만 엔진은 순복음, 그리고 연료는 제자훈련”이 될 수 있다. 이는 제자훈련이 어느 한 교파만의 전유물일 수 없고, 또한 세계의 여러 형태의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목회의 본질임을 잘 보여준다.

62세 청년, 김오용 목사

김오용 목사에게서 받은 인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젊은 영혼을 가진 사역자’였다. 동일로교회의 성도들이 김오용 목사에게서 평하는 말에는 “겸손, 겸소, 열린 마음” 등의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간다. 그가 사용하는 언어나 부교역자들을 대하는 태도 등에서도 완고함이나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동일로교회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김 목사는 선교를 강조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자를 세우는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동일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지금 제자훈련 사역의 짐을 사모와 부교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자신은 그 여력을 선교 사역에 사용하고 있다. 부교역자들을 보내거나 선교사로 파송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단기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그가 보여준 선교지에서의 사역 사진을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지역에 들어가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다. 62세의 목회자가 들어가서 사역할 만한 곳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그는 기꺼이 거기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

안유선 집사는 김 목사가 선교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억만금을 준다 한들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한 주는 추운 나라로, 또 한 주는 더

운 나라로 몸을 사리시지 않고 주의 일하기에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쩔 땐 눈물이 핑 돌아요. 인간의 마음으로 안쓰러워 보이실 때도 있었지만,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 목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아직도 꾸준히 독서를 하고 있고, 누구에게서든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조오순 집사는 김 목사를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분”으로 소개하면서 “순수하신 분”이라고 반복해 말한다. 평신도들도 김 목사의 이런 순수한 청년 정신은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제자훈련은 원래 청년 선교단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청년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청년을 대상으로 할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선입견이 있다. 김오용 목사가 제자훈련을 쉽게 동일로교회에 접목하고 지금까지 그 열매를 누릴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가진 특유의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적인 실천력이 크게 작용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바로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청년 정신이 발현된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김오용 목사의 말을 듣고, 그 사역을 살펴보면 그를 62세 청년이라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동일로교회를 외면에 나타난 모습만으로 판단한다면, 전형적인 제자훈련 교회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니, 이들이 비록 다른 옷을 입고 있으나 각 사람을 섬기고 가르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겠다는 비전은 동일함을 알게 됐다. 동일로교회와 김오용 목사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온 그 방식대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변화시키는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세계 선교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는 그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희원 목사〉